

나프타, 유가불안으로 재상승 조짐

Spread도 2월 첫주보다 올라 ... 석유화학제품 당분간 보험세 유지

1월 톤당 390달러까지 폭등했던 나프타 가격이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원유감산 소식으로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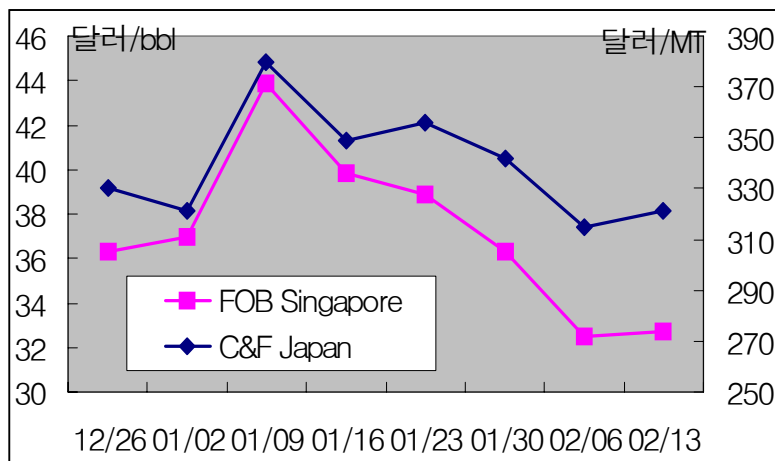
나프타(Naphtha) 가격은 2월10일 OPEC의 원유 감산 소식과 나프타 재고감소로 2월12월 32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나프타 생산기업 관계자는 “2월11일 OPEC의 감산소식으로 US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상승했으나 아시아 SIMEX에 영향을 주는 IPE의 북해산 Brent유 가격이 하락해 C&F Japan 나프타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프타는 2월10일 톤당 318달러에서 12일 326달러로 8달러 상승했고, Spread(Premium)는 2월6일보다 2달러 올랐다.

나프타 Spread는 2월12일 Buyer 기준 5달러, Seller 6달러를 기록했는데, 2월10일 CPC No.3 크래커 화재로 Seller' Spread가 1달러 하락했다.

나프타 가격추이(2003.12-2004.2)



나프타 시장 관계자는 “나프타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고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면서 구매경향을 띄는 Buyer와 나프타 가격이 충분히 인상됐다는 Seller가 시장에서 의견 차를 보이면서 정확한 가격흐름에 대해 전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원유 및 나프타 가격은 난방용 수요가 줄어드는 3월을 기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OPEC의 감산조치로 나프타 가격도 현재 시세에서 보험세를 유지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초유분을 비롯한 Down Stream의 가격하락을 기대했던 Resin 수요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6>